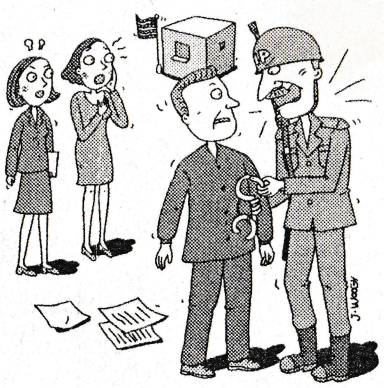
출동! 독자와 함께

한겨레 99.8.25.수

미군기지앞 시위 신부등 3명 수갑채워 끌고가

"무단침입" 미군 주장에 "과잉 대응" 항의



지난 6일 저녁 전북 군산 주한미공군의 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 미군들에게 '울프 팩'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에서 문정현(59·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상임대표) 신부와 여성 활동가 3명은 저녁 7시부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두시간쯤 지나 굳게 닫힌 기지의 정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 신부 등 3명은 미군 헌병한테 끌려가 수갑을 차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미군 헌병이 문을 열더니 나를 잡아채 끌고 갔다. 그리고 팔을 뒤로 결박해 수갑을 채웠다. 미군 헌병은 '왜 신부님을 연행하느냐'고 항의하는 두 여성에게도 수갑을 채워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오두희(45·전북 평화인권연대 집행위원장), 김민아(32·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간사)씨는 연행과정에서 저항하다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또한 문 신부는 1시간 동안 골방에 갇힌 채 몸수색을 당하고 미군이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어가는 등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쪽은 문 신부 등이 기지 안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군산기지 정문을 열자마자 문 신부 등이 밤 9시2분께 미군 헌병에게 팔을 휘두르며 거칠게 밀고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미군쪽 상황일지엔 시위대가 저녁 7시15분께 정문 등에 돌을 던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신부는 일부러 기지를 침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돌을 던진 적도 없다고 미군쪽 주장을 반박했다. 문 신부는 "이날 시위가 시작되면서 굳게 닫혀 있던 미군기지 정문이 갑자기 열려 무슨 일인지 문을 열고 50cm 정도 발을 들여다 놓자 미군 헌병들이 나를 낚아채갔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춰볼 때 미군쪽 행동은 과잉방어라는 게 문 신부의 주장이다.

감금시간도 주한미군은 밤 9시36분 한국 경찰한테 인계할 때까지 30분 가량 문 신부 일행을 '모시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 신부는 밤 10시5분께 한국 경찰에 끌려나왔으므로 1시간 가량 감금됐다고 반박했다.

문 신부 등은 한국 경찰에 넘겨진 뒤 다음날 새벽 2시께 석방됐다. 문 신부는 묵비권을 행사했으나, 경찰은 불법침입 혐의로 문 신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해 5월 이후 매주 금요일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소파) 개정과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천주교계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름으로 최근 주한미군 당국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교계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전국미군기지공동대책위 등 5개 시민단체는 오는 30일 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 문제와 관련한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도형, 군산/임석규 기자

'우리땅찾기'집회 과잉진압이유 추궁

이형배의원 행자위 질의



지난 6일 군산미군기지와 기아특수강앞에서 해고자 전원복직과 우리땅찾기 운동집회해산 과정에 발생한 경찰의 대응방법을 '과잉진압'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과잉진압'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은 9일 행정자치부 상임위에서 '기아특수강 해직자 복직집회'와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에서 발생한 경찰의 대응방법을 '과잉진압'이라고 규정하고 김광식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진상을 따져 물었다.

특히 이의원은 이날 "현행법상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면서 평화적집회를 감정에 치우쳐 무자비하게 강제진압한 이유를 추궁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김광식경찰청장은 "이번사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한후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전형남기자〉